

국토정책 *Brief*

제 273 호
2010. 4. 19

KRIHS 세미나 중계 10-①

“新성장거점,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” - 핵심 내용 -

김영표 선임연구위원(국토연구원)

- 국토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공동으로 지난 4월 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「新성장거점,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」을 개최함
 - 공동주최: 국토연구원 · 한국개발연구원 · 한국행정연구원 · 과학기술정책연구원 · 한국지역학회 · 한국도시행정학회 · 한국도시지리학회 · 산업클러스터학회
 - 후 원: 국무총리실 · 국토해양부 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-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연방정부 분할에 따른 현안과제를 파악하고, 미국 오스틴과 Research Triangle Park(RTP) 등 교육 · 과학연구 · 첨단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의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한 성공사례에 대한 발전경험과 성공요인을 상호 공유하고,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함
- 주제 및 발표자
 - ① 독일 본-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
 - Axel Busch(독일, 베를린도시 · 환경계획연구소 이사 / 전 베를린예술대 교수)
 - ② 오스틴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
 - William David Porter(미국,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)
 - ③ Research Triangle Park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
 - Michael Zapata III(미국,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)
 - ④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新성장거점,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
 - 김영표(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- 독일은 본과 베를린 간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로 비효율과 고비용 발생
- 오스틴은 교육 · 과학 · 첨단산업 도시로 지난 10년간 인구 41% 증가(미국 전체는 10%)
- RTP는 주변 3개 도시 간 연계발전으로 미국 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평가
- 세종시는 한국의 新성장거점이자 국토공동발전의 미래 전진기지로 발전

1. 독일 본-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

Axel Busch(독일, 베를린도시·환경계획연구소 이사 / 전 베를린예술대 교수)

-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(Berlin)으로 수도를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, 현재까지 **대통령직무실**을 비롯하여 **의회, 대법원, 8개 연방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**했으나, 아직도 6개 부처가 본(Bonn)에 남아 있어 연방정부의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큼



- 연방정부의 분할로 정부 내 정

책정보의 흐름이 지체되고 대면접촉의 부족과 출장시간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크게 증대함

- 본과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고, 별도의 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이중의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됨

- 8개의 연방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겨가고 6개 부처가 남은 본에는 UN기구를 비롯한 20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왔고, 도이체 텔레콤과 도이체 포스트의 본사와 다른 기업들이 입지함으로써 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는 등 발전의 계기를 확보함

- 본에는 부처 이전으로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, 국제기구와 기업들의 입주로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, 결과적으로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남
- 투자가 늘어나고 도시 인프라가 오히려 개선되면서, 인구가 증대하고 주민의 연령층이 낮아졌으며,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면서 소득과 구매력이 높아져 문화적 중요성이 커짐

-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

- 정부부처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된 것은 정치적·상징적(political and symbolic) 배경을 갖고 있으며, 이것은 분산정책(decentralisation)과는 관련이 없음
- 본과 베를린 간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은 비효율적이며 고비용 소요

- 한국의 정부부처가 서울에 계속 있게 되면, 독일에서와 같은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임
- 일단 부처가 공간적으로 분할되어 버리면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 분할 상태는 계속될 것임
- 세종시의 매력성은 경제적 기반(economic base), 구체적 기능, 국가적·국제적 맥락 속에서의 그 위상에 의해 결정될 것임

2. 미국 오스틴(Austin)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

William David Porter(미국,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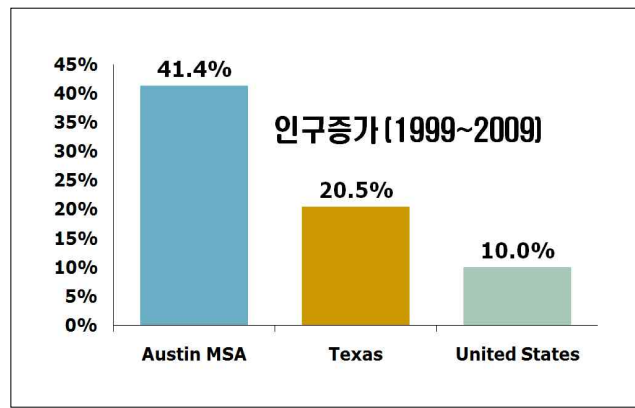


■ **교육·과학·첨단산업 도시인 오스틴**은 풍부한 일자리, 글로벌 대기업,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, 양질의 생활환경, 저렴한 생활비(미국 평균 이하), 편리한 교통, 조세·신기술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음

- 오스틴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‘**휴먼수도(Human Capital)**’라는 별칭을 얻고 있음
 - 오스틴지역은 미국 내 취업하기 좋은 도시 1위, 창조적 청년층(Creative Class)의 거주 선호지역 1위임
 - 170만 인이 거주하는 오스틴 대도시권지역의 취업자수는 89만 인으로 주민의 52%가 일자리를 보유
 - 인구의 70%가 45세 이하(미국 전체 62%)이고, 38.4%가 대졸 이상(27.5%)임
- 오스틴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41.4% 증가하여 미국 내 50개 대도시지역에서 2위를 차지함(같은 기간 미국 전체 인구는 10%, 텍사스주는 20.5% 증가)
 - 향후 5년 내 11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, 2020년까지 인구가 230만 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■ 오스틴은 **창조, 혁신, 발명의 도시**로 미국 내 첨단기술을 선도하면서, **미국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Best City**로 평가받고 있으며(포브스), 미국 메트로경제권 중 3위의 경쟁력을 보유함(브루킹스)

- 모험적 기업가정신과 ‘할 수 있다 (can-do)’의 창조문화 충만
- IBM · 델 · AT&T · 애플 · 3M ·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 입지 및 수많은 연구소 활동
- 2700개의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이 1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, 이들이 오스틴지역 총임금의 1/4을 담당
- 오스틴은 연간 2500개 내외의 특허권 취득으로 **미국 내 3위의 발명도시**로 평가됨



3. 미국 Research Triangle Park(RTP)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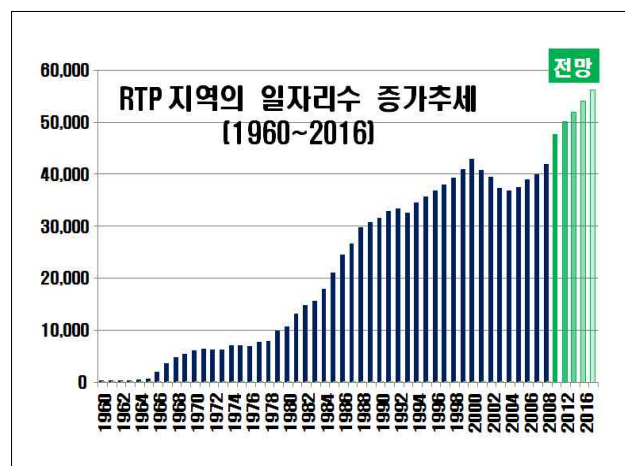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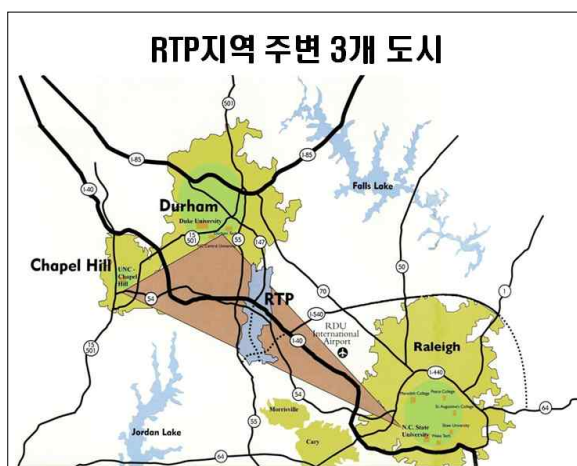
Michael Zapata III(미국,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)



■ RTP는 노스캐롤라이나州的 롤리(Raleigh)-더럼(Durham)-채플힐(Chapel Hill) 3개 시 중앙에 위치한 **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**

■ RTP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, 대학 ·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, 정부의 지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 유치, 기존기업 지원,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 등의 지속적 발전 도모

- RTP는 미국 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, 공공교육시스템 우수 2위 도시임
 - 28.3km²의 RTP에는 17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4만 2천 인을 고용하고 있음
- RTP 주변 3개 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평균 19.5%(같은 기간 미국 평균 5.3%) 늘어나는 등 주변지역 간에 서로 연계성장하고 있음
 - 롤 리: 24.1% 증가 [37.6만 인 ⇨ 46.7만 인]
*캐리·모리스빌 지역 포함
 - 더 럼: 11.8% 증가 [18.7만 인 ⇨ 20.9만 인]
 - 채플힐: 13.9% 증가 [4.6만 인 ⇨ 5.2만 인]
- 73만 인이 거주하는 RTP 주변지역의 취업자수는 40만 인으로 주민의 55.1%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
- RTP는 주변의 Duke University,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, University of North Carolina-Chapel Hill 대학들과 산학연 협동이 매우 활발함
 - 3개 대학에 연간 14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
- RTP에는 연간 28억 달러 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연간 임금지불액도 2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번영하고 있음
- RTP 성공요인은 주지사 등 지도자의 지속적 장기비전 제시 및 실천, 모험적 기업가정신 지원프로그램, 클러스터 형성, 대학연구 지원, 新비즈니스 투자촉진 등에 기인



4.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新성장거점,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

김영표(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

● 세종시의 미래 패러다임

- 세계경제의 미래 흐름과 세계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 먹거리 기반을 창조
-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국가행정 및 국가위기의 효율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로 이행

- 산업·대학·과학 기능이 융복합된 新경제발전모델 구현
- 글로벌 차원의 지역별 특성화에 기반하여 국토전체의 공동발전 구현

● 세종시의 발전모델(SEE-Together 모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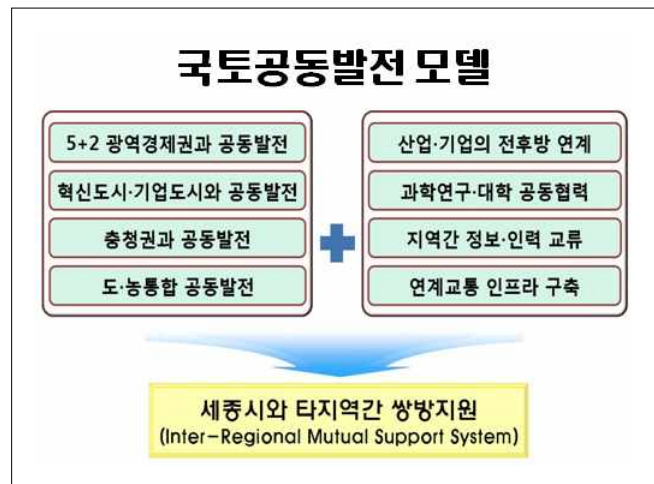
- 세종시 미래발전방향은 발전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, 모델의 기본구조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됨
 - 과학(Science), 경제(Economy), 교육(Education)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녹색(Green)과 글로벌(Global) 기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‘미래新성장기능 축(SEE+2G)’
 - 新성장기능의 융복합 발전(Together1)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, 아울러 지역 간 상호연계를 통해 국토전체가 다 함께 공동발전(Together2)하는 축



- 세종시의 미래 패러다임과 발전모델을 고려하여 세종시의 비전을 “**교육·과학 중심의 경제도시**”로 설정

● 세종시와 국토공동발전 전략

- 세종시는 **혁신도시·기업도시** 등 지역별 특성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쌍방지원체제를 갖추고, 주변지역과 충청권, 나아가 국토전체와의 공동발전을 선도



- 세종시와 주변지역을 **광역적으로**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, 경제권, 생태권, 대중교통권으로 연계하여 **동반 성장과 공동발전**을 촉진하도록 함

- 세종시와 충청권 내 과학연구·산업 거점 간에 기능을 특화하고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**과학비즈니스벨트**를 구축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 **충청권지역 공동발전**을 추구하고, 또 세종시와 3대 역사문화권(백제·중원·내포문화권)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- 세종시는 **국토전체와의 공동발전**을 위해 각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쌍방지원하면서 공동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데, 구체적으로 **혁신도시·기업도시와의 연계**, **기업·산업의 지역연계**, **과학연구의 지역연계**, **대학·교육의 지역연계**를 통해 지역 간 공동발전을 추구

●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

- 공동발전 전략을 통해 세종시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고부가가치의 기회를 만드는 요람으로서, 한국의 **新성장거점**인 동시에 **국토공동발전의 미래전진기지**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



新성장거점,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ture Paradigm of Sejong City as a Creative City

■ 일시: 2010년 4월 6일 (화) 14:00~18:00 ■ 장소: 국토연구원 강당

● 주최: 국토연구원,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지방자치연구원,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한국지리학회, 한국도시행정학회, 한국도시학회, 산업물류학회 ● 후원: 국무총리실, 국토해양부, 행정안전부, 서울특별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



- 본은 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 UN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, 뉴타운 개발, 새로운 기업유치로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됨(Rupert Kawka, 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개발연구소 PM)
- 발전안에서는 고용인구의 대폭 증가로 도시가 다이내믹해지므로 교통체계를 다기능화해야 하고,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오스틴은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면서 다양한 문화 등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바, 세종시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어 인재를 육성해야 함
- 연구개발(R&D) 기능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유치에 노력해야 하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중요함
- 좋은 도시는 교육의 질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야 하며, 지역인재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
-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은 바람직함: 도시는 재미있고 아름답고 쾌적해야 하므로 세종시도 그런 방향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함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· 지역연구본부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(ypkim@krihs.re.kr, 031-380-0400)